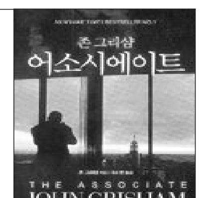
북스

Books

스릴러의 계절, 영화처럼 생생하다

어소시에이트

존 그리샴 지음·유소영 옮김



존 그리샴은 초특급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책은 29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세계에서 팔린 책은 2억 5천만부에 이른다. 그는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 '패트리어트 게임'의 톰 클랜시와 함께 초판으로 200만부를 찍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존 그리샴의 작품은 대부분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펠리컨 브리프' '레인메이커' 등 히트작이 즐비하고 줄리아 로버츠, 덴젤 워싱턴, 토미 리 존스 등 출연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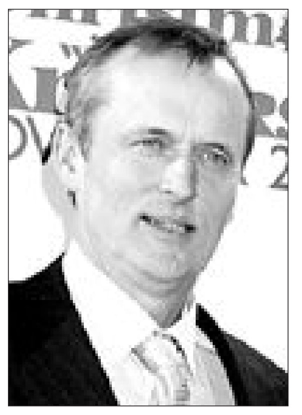
스릴러물을 읽기 딱 좋은 여름, 존 그리샴의 새로운 소설 '어소시에이트(The Associate)'가 발간됐다.

법대 출신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을 '제대로' 살려 뛰어난 법정 소설을 많이 써낸 그답게 이번 소설 역시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대 법률기업이 배경이다.

주인공은 예일 법대 졸업예정자인 카일. 대학 졸업 후 공익 법률 단체에서 일하려던 그의 계획은 모종의 음모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는 악마와의 거래에 빠져든다.

소설은 유소년 축구리그 장면으로 시작된다. 경기장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등장하고 그는 카일과 친구들의 난잡한 파티 동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내밀며 그를 조정하기 시작한다. 정체불명의 베니와 일당들의 요구대로 뉴욕 최고의 법률회사에 취직한 그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

존 그리샴의 소설은 출간과 함께 많은 감독들이 영화화 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지난 1998년 존 그리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레인메이커'의 한 장면.


존 그리샴

베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며 카일은 자신과 친구들을 강간범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비디오 속 주인공 일레인을 추적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간다.

여기에 카일의 친구로 '비디오'에도 등장했던 조이와 백스터까지 얽히면서 사건은 점점 복잡해져 간다.

책을 읽다보면 왜 그의 작품이 그렇게 많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작품의 많은 장면들이 영화의 장면 장면 처럼 생생하다. 최첨단 컴퓨터 등 각종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영상으로 멋지게 펼쳐질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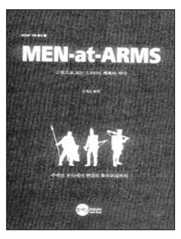
작품은 종반부까지 사람을 긴장시키며 몰아가는 맛이 있다.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듯 해 뒷장이 궁금해지고, 몇몇 반전은 무릎을 치게 만든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작품의 흡입력이 뒤 떨어지는 게 아쉽다. 어떤 면에서 결말은 다소 허무하기까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존 그리샴의 능력이라 할만하다.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주인공 카일 역이나 악당 베니 역에 어울릴만한 배우를 대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카일 역에는 맷 데이먼이 적당하지 않을까. 〈문학수첩·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멘-앳-암즈'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갑옷의 모양과 색, 옷의 재질, 말의 품종, 무기의 종류 등 각양각색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면 한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군사 전문 사이트 디펜스코리아 자문위원을 지낸 신재호씨가 편역한 '멘-앳-암즈(Men-at-Arms)'는 기원전 2천500년경 수메르 보병부터 현대 미군까지 5천년에 걸친 세계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멘-앳-암즈'는 영국 출판사 오스프리가 1968년 처음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450권이나 나온 시리즈물로, 이번에 출간된 책은 각 권에서 그림 1~2장씩 뽑아 만든 40주년 기념판을 편역한 것이다.

〈플래닛미디어·7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신라의 눈으로 본 김춘추와 한국

춘추

이종욱 지음

선덕여왕과 미실, 그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라 중흥의 틀을 다진 태종무열왕 김춘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려 해온 이종욱(서강대 사학과) 교수가 출간한 '춘추-신라의 피, 한국·한국인을 만들다'는 주류사학계의 논리를 반박하며 그간 김춘추와 신라에 씌워진 '오명'을 벗긴다.

책의 부제인 '신라의 피, 한국 · 한국인을 만들다'에서 보듯 저자는 한국·한국사의 근원에 일대 문제를 제기하며 "김춘추의 신라, 신라의 김춘추는 삼한통합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오늘날 한국인을 있게 한 장본인 이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춘추에 대한 역사학계의 평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저자는 "춘추에 대한 역사학계의 평가는 대부분 외세를 빌려 동족 국가를 망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무대를 축소했다는 식이었다"면서 "이는 광복 이후 소위 민족사를 표방해온 한국사학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우선 '화랑세기'를 근간으로 춘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춘추는 성골에서 진골로 신분이 떨어진 뒤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이 된 인물로 할아버지인 신라 25대 진지왕이 즉위 3년 만에 폐위되자 아버지 용수와 더불어 진골로 격하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 미실이라는 여인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설명한다. 24대 진흥왕이 사망하자 왕비인 사도는 진지왕을 새 왕으로 옹립한 뒤 조카 미실을 왕비로 맞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진지왕이 반대하자 사도와 미실이 진지왕을 내쫓고 진평왕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는 얘기다. 진골로 강등된 춘추는 이후 화랑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김유신과 교분을 나눴고, 이모인 선덕이 왕위에 오른 뒤 왕의 주변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주장의 근거가 진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화랑세기'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신라인과 삼국시대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역사적 논거로 일반화 한점은 흠이다.

특히 국제적 역학관계나 시대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춘추의 삼한통합을 한국·한국인의 근원으로 삼고자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효형출판·2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안녕 아빠=밀리언셀러 '국화꽃 향기'의 작가 김하인이 '아버지'를 소재로 쓴 가족 소설. 부족할 것 없던 열여섯 살 민서네 가족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IMF를 맞아 도산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빚쟁이들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민서에게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병든 아내만 데리고 급히 집을 떠나게 된다. 〈자음과 모음·9천900원〉

▲손가락이 뜨겁다=올해로 등단 21년을 맞는 채호기 시인이 전작 '수련' 이후 7년만에 펴낸 다섯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는 표제작 '손가락이 뜨겁다' 등 자신의 몸에 들어 있으며 자신의 일부인 언어를 끄집어내서 쓴 시 70여편을 담았다. 시인은 "침묵의 의미로서의 돌의 말, 언어의 몸으로서의 돌에 대해 시를 쓴다"고 밝혔다.

〈문학과지성사·7천원〉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아! 노무현=박노해 시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30여명이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추억했다. '오마이 뉴스' '한겨레' 등 언론사와 각종 블로그에 올라온 글 가운데 고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글을 추려 엮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집'이다. 〈책보세·1만원〉

▲너는 나의='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이치카와 다쿠지의 2002년 데뷔작. "우리 다시 만나면, 키스해. 그리고 실컷 껴안자. 두 사람의 몸이 녹아 하나가 될때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어려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린다는 독특한 설정의 '너는 나의'와 'VOICE'두 작품이 실려 있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조선지식인의 리더십=여러 권의 역사소설과 역사에세이를 낸 신봉승 추계영상문예대학원 석좌교수가 식민 지배와 전쟁 등으로 참담했던 20세기를 돌아보면서 21세기를 경영하는 리더십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울분을 토하는 상소를 올린 면암 최익현, 광복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들이 역사를 만들고 시대를 이끈 참지식인이었다고 말한다.

〈청아출판사·1만5천원〉

▲브레이킹 던=영화로도 제작돼 전세계 10대들에게 뱀파이어 신드롬을 불러온 스테프니 메이어의 베스트셀러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완결편. 벨라가 에드워드가 직접 자신을 뱀파이어로 변신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에드워드의 청혼을 받아들여 둘이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북폴리오·1만6천원〉

▲날아라 새들아=소설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성각씨가 강원도 춘천의 퇴골에 만든 풀꽃평화연구소에서 밭을 매고, 거위와 닭을 치고, 땡감을 모으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자연에 대한 성찰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녹색성장' 이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경제와 개발지상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가득하다.

〈산책자·1만2천원〉

법원부동산경매정보
국민법률경매(주)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 정 미 경
TEL : 062-351-0664
H · P : 010-7628-0664
토지 / 주택/전원주택/농가주택 / 근린주택/근린시설/근린상가 / 다가구/원룸 / 주유소 / 빌라/오피스텔 / 숙박시설 / 공장/창고 / 농가관련시설 / 아파트